



3면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음 2월 13일) 제297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 이끈다

도, 경쟁력 강화 위해
34억5000만원 투자
스마트공장·인력양성
그린환경개선 집중 지원



도의회 임시회 개최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회 의원들이 개회식에 앞서 국민인례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개 사업 20개 분야에 34억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전북의 뿌리기업은 영세기업(10인 미만) 규모가 약 50%로 산업기반이 열악하나 산업변화 대응과 혁신성장지원 등을 위해 '뿌리산업종합발전계획(2021~2023)'에 따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요와 뿌리산업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공정(工程)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 근무환경 등 체질 개선을 뿌리산업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북도는 도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생태계 혁신성장, ▲기술 R&D, ▲그린환경 시스템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뿌리산업 지원에 대한 신청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통합관리시

스템(<http://pms.jat.re.kr>)을 통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일 초 신청 가능하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뿌리기술 범위 확장과 기술 융복합화·첨단화 대응을 위해 차세대 뿌리기술 업종 실

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차세대 뿌리기술과 융복합 지원을 추진하여 미래형 뿌리산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뿌리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 수렴 및 성장의 핵심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마을단위 농촌축제 본격화

익산 성당포구 행복드림 축제 등 도내 8개 선정
도, 사업비 1억 확보...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추진

전북도가 마을공동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단위 농촌축제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축제' 사업에 익산 성당포구 행복드림 축제 등 8개(전국 72개소) 축제가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농촌축제는 주민회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을 주제로 하는 마을(권역) 단위 축제 사업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70여개 축제를 선정,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촌축제는 타 축제와 다르게 축제기획, 준비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마을주민이 주체가 된다.

농촌의 옛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소외계층(여성·고령 노인)이 함께 즐기는 마을 공동체 축제로 의미가 크다.

도는 앞으로 농촌축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을콘텐츠(생태문명 세계잡버리 대응, 야간 콘텐츠 등) 발굴을 통해 특화된 예비 농촌축제를 20개소 발굴, 농촌축제가 지역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농촌축제 국비지원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촌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촌 축제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기획, 진행, 정산 등을 총괄하는 전담직원 육성을 위해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축제 활성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마을위원장·사무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농촌활력과 이지역 과정은 "마을주민 주도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 전체가 즐기고 참여하는 농촌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농촌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 '목재친화도시' 공모 선정 쾌거

무주 설천 노후된 삼도봉장터 개선 등 국비 25억 확보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도 선정, 연계 추진시 시너지 효과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무주군이 선정되어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주제로 탈바꿈하는 22년도 신규 공모사업이다.

전국 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산림청 공모에는 무주군을 비롯해 15개 지자체에서 응모했으며, 전북도와 무주군

이 적극 대응해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년도 첫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로 가는 도시 Slow & Wood Village' 실현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설천 삼도봉장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거주하고 싶은 미래 농촌형 목재친화도시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삼도봉 장터를 목구조로 리모델링하고 목재특화거리,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공구 임대, 지역브랜드 전시, 체험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전망이다.

한편 20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무주 설천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사업, 188억을 연계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가능이 약화된 삼도봉장터와 주변 상가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

들의 복합활동 공간 및 외부 방문객 유입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력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유희숙 환경복지국장은 "올해 첫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해 도시내 건축 거리 등을 조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목재 친화 도시사업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본격

전북도-익산시, 지역 유치 민관협력 '총력'

전북도와 익산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청소년 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 용인과 대구 달성군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호남권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익산시와 광주광역시 중에서 설치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총결집을 위해 행정(도·익산시·교육청), 정치권,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관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별도 민익산시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 지원협약 등 다각적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익산=이득훈기자



전주매일 캠페인